



권두언

## 오늘의 우리는 ...

신록이 푸르른 6월은 혈기왕성한 젊음의 계절이다. 그러나 기업의 도산과 실직사태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빛나는 태양조차 차디차게 느껴질 뿐이다. 이러한 체감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삶의 토대, 그 울타리가 무너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동반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등 조직의 균사를 빼고, 외형으로 부풀려져 있는 거품을 걷어내는 이 작업은 고통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살을 저미는 아픔과 내던져진 자의 비명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칼날 아래에서 번지는 것이다.

두려움과 아픔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를 나누어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른바 고통분담이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나눌 수 없는 고통,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아픔, 위로할 수 없는 슬픔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고통이나 위험은 그것이 다가온 뒤에 함께 나누는 것도 가혹한 마음씀이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덮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일, 그러한 수고야말로 값지고 지혜로운 시간적 고통분산인 것이다.

작금의 구조조정의 고통은 사전에 거품과 균살제거의 수고라는 작은 고통을 외면한 결과로 얻은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는 그것을 남의 일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웃소싱이니 혁신이니 하는 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직업의 浮沈이 무상한 요즘 세상에서 기록업무에 종사하고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속기인들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 일의 철학, 주변환경과 기술의 변화, 우리 단체의 효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어떤 사고의 틀을 갖추어야 할지를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활로개척에 필요한 일이라면 실행에 옮기도록 힘써야 한다. 나중에 강요된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하는 더 큰 고통이 없도록 말이다.



# 어느 때보다 열기 높았던 제31회 정기총회

지난 1월 31일 대한속기협회 제31차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295명중 27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속기경진대회 입상자 시상식에 이어 1997년도 결산, 19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27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룬 이번 정기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 높은 총회였으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속기인들의 의지 또한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던 지대섭회장의 참석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을 뿐 아니라 협회의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기도 했다.

## 잘못된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역사를 써가자

특히 이날 지대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25 이래 가장 큰 국난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IMF한파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룬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저마다 소비가 미덕인 양 낭비해온 결과"라 단정하고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국민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책무를 보다 더 열심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한 다음 "기왕에 생색나지 않는 음식에서 열심히 일해온 우리 속기인들 모두가 이토록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잘못된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역사를 한 장 한 장 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31차 정기총회에서 결산 및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장면

## 대구·경북지역 회원들의 활약 가장 돋보여

총회중 속기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 변성수 회원이 개인전 우승을, 그리고 대구·경북팀이 단체전 금상을 수상하여 1997년은 대구·경북지역 회원들의 활약이 가장 돋보인 한해였다. 이어 개인전 은상에는 충북·청주시의회의 조영선 회원이, 개인전 동상은 충북 청주시의회의 장미남 회원과 경남·합천군의회의 이정선 회원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단체전 은상은 경상남도팀이, 동상은 충청북도팀이 수상하여 회원들의 박수와 격려속에 시상식을 마쳤다. 뒤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의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 김영서·윤태원·황은화·김영중 회원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한편 1997년에는 많은 사업에서 성과가 있었다. 먼저 벨기에 리에즈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중앙집행위원회 지대섭회장을 비롯 4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연구위원회에서는 기계를 이용한 속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6월에는 무주에서, 11월에는 대구에서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결속을 다짐과 동

시 제5회 속기경진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또한 홍보·출판사업으로 소식지 2회, 속기계 34호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한국속기50년사의 1차년도 사업으로 집필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2월에는 2주간에 걸쳐 제46기 속기무료강습을 실시하였다.

1998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속기학술세미나 및 회의록작성 실무교육, 속기학술연구, 한국속기50년사 발간사업, 인터스테노 참가, 환경보호 및 속기인친목 활동, 협회통신망 구축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날 회원들이 보여주었던 관심들, 특히 제주도의 회원들이 보여 주었던 그 열기는 IMF 시대에서 우리 속기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을 짚어준 것 같았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모두가 힘든 요즘 우리 속기인들이 전문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는 자부심과 협회 발전을 위한 속기인들의 관심, 그리고 속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이사회 개최

#### ◎ 제175차

1997년 12월 4일 오후 4시 대한속기협회 제175차 이사회가 성천영 속기1과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안건은 속기강습의 건으로 빠른손 워드와 CAS를 강습 대상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2주로 하며, 접수는 각 학원에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내용은 사업부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 ◎ 제176차

1998년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 대한속기협회 제176차 이사회가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1회 정기총

회의 건을 상정하여 일시는 금년 1월 31일 토요일 14시로 하고,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였다. 1997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어서 19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자는 의견과 예산배정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사무실 임대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다음으로 사업부장은 속기강습 결과 66명(빠른손 워드 28명, CAS 38명)의 수료자가 나왔음을 보고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속기 과대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금년 인터스테노 참가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도록 했다. 한편 제31회 정기총회 때 표창패 수여대상자로 지방회원중에서는 김영서·윤태원 회원으로 하고, 중앙에서는 김영중·황은화 회원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 제177차

1998년 5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오성빌딩 지하 무지개회관에서 제177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총무 이사로부터 제31회 정기총회의 결과 보고, 문화관광부 정기보고, 97년도 집행 잔액 예탁이자 반납, 염덕훈 국제이사의 사임 표명, 98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조정 등의 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각 부서의 현황을 간단히 들었다.

이어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1998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성천영 이사장으로부터 협회가 요청한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들었고, 인터스테노 참가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침을 정하는 한편 98년도 속기학술세미나의 장소와 일시는 이사장과 사업부·총무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 기타사항으로 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자격시험의 협회기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비롯, 협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 한국속기50년사편찬위원회

한국속기50년사편찬위원회는 1997년 11월 7일과 12월 19일 양일에 걸쳐 제3·4차 회의를 하였다.

먼저 11월 7일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편집위원과 집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집필자들의 원고작성 현황

### VDT증후군 예방할 수 있다!!

VDT(Visual Display Terminal)증후군이란 VDT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경견완(頸肩腕)장애라고도 하며 주로 정보통신업계 등 컴퓨터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직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속기업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VDT증후군의 증상 : 시야가 흐리며 소화불량, 수면장애, 어지러움, 속 메스꺼움, 얼굴이 따끔거리는 현상, 기억력 감퇴, 주의집중 부족, 머리가 멍해짐, 어깨와 목 불편함, 손목이 뻣근해짐, 손가락이 뻣뻣함, 팔에 힘이 안 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VDT증후군의 자가진단법 :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눈을 감은 채 30초 동안 있다. 이 때 어깨가 심하게 떨리거나 30초가 되기 전에 팔이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신호다. 특정부위를 눌러서 심하게 저리거나 통증이 와도 위험신호다.

VDT증후군 예방법 : 화면의 먼지를 자주 닦아준다. 눈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1분에 20회 정도로 자주 눈을 깜박거리다. 50분 정도의 작업후에는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있거나 먼 하늘을 쳐다본다. 컴퓨터 화면을 수평에서 10~15도 아래로 둔다. 손은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지 않고 키보드에 놓이도록 의자의 높이를 조절한다. 하루 4만타 이상 넘지 않도록 업무량을 조절한다.



을 점검하고, 원고제출시한이 1997년 12월 10일까지임을 통보하였다.

이어서 12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원고접수를 마감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편찬 방향 및 기타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원고 편집·교정 및 교열·감수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1998년 5월 31일 현재로는 원고수집이 90% 이상 마감된 상태에서 원고 교열작업에 들어갔으며, 이 작업은 7월말까지 끝마칠 예정이다.

### 우려되는 컴퓨터속기 과대광고

요즘 신문의 광고란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컴퓨터속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광고라는 것이 으레 그런 것처럼 이 컴퓨터속기에 관한 광고 역시 과장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 그 광고를 보면 속기는 짧은 기간(3개월 정도) 내에 그 기술을 익

힐 수 있으며, 취업의 길은 매우 넓고 보수도 고액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같은 내용에 현혹된 사람들의 피해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기사를 1998년 1월 26일자 <동아일보>와 2월 4일자 <조선일보>에 낸 바 있다. 사실 그 동안 속기사라는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취업의 문이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사실을 속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었고, 특히 지방의 희망자들은 모든 정보를 오로지 신문이나 광고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더욱 더 컸었던 실정이다.

따라서 속기사가 IMF시대에 각광받는 직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향후 질적으로 우수한 속기인의 양성을 위해서라도 협회는 속기를 배우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과대광고로부터 지켜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997년도 <速記關聯研究論叢> 발간



연구위원회는 1997년도 <速記關聯研究論叢>을 98년 2월에 발간하였다. 논총에는 빠른손위드 약자의 체계화, CAS속기에 관한 검토(약자를 중심으로), 정보화사회와 국회속기록의 활용방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과 국회속기록의 상호관계(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직 수필속기사의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방안연구(국회 수필속기사의 재교육을 중심으로), 현행 속기업무의 개선을 위한 주입속기사제도 도입방안, 회의록원고 작성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요약회의록 발간방안(상임위 및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등의 논문이 실려 있다.

###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 교육

1998년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회사무처 전산실에서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 관련 전산교육이 있었다.

국회사무처 속기 1·2과 전직원(편집담당 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교육은 국회도서관 전산 정보제작과와 전산개발과에서 담당했던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의 데이터 등록 및 관리업무 중 일부가 국회사무처 속기과로 이전됨에 따라 그에 따른 1998년 9월 정기국회부터 시행될 예정인 속보회의록의 전송과 관련한 입력 및 관리프로그램의 습득을 위한 사전 설명을 겸한 것이었다.

일정은 98년 5월 11일부터 5월 23일, 그리고 6월 9일부터 12일까지 5개조로 나누어 각각 이틀간 실시되었는데,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 교육의 주요내용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등록 및 관리, 그리고 등록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강사로는 국회도서관 정보처리국에 근무하고 있는 도안숙·허은순 직원

이 담당하였다.

### 1998년도 속기행정과정 교육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1998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1998년도 속기행정과정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행정자치부 박승주 부이사관이 '지방자치법규와 사무'를, 국회의정연수원의 최민수 부이사관이 '지방의회 회의운영'을 강의하였고, 본 협회에서는 홍순관 이사가 '지방의회 회의록체제 검토 및 통일화 방안'과 '회의록 신속발간 및 컴퓨터 속기화 방안'에 관해 강의한 것을 비롯하여 김선옥 이사가 '정보화 사회와 회의록 작성업무'를, 김창진 이사가 '회

의록 작성 편람 해설'을, 손재옥 이사가 '의회용어 해설'과 '한글 바로쓰기'를 주제로 각각 출강하였다.

### 전국 지방의회사무처(국·과) 실무직원 연수

한국산업기술원 부설 지방자치연구소에서는 1998년 5월 28일 설악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전국 지방의회사무처(국·과) 실무직원 연수를 가졌다. 이 연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의 사과장 및 속기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본 협회에서 홍순관 이사가 출강하여 '효율적인 회의록 발간방안'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 협회발전기금 조성에 뜨거운 성원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협회가 좀더 활력있고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협회로 발돋움하고자 추진했던 '협회발전기금조성'에 그 동안 많은 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기금을 납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성천영이사장 (02) 788-2339 이경식총무이사 (02) 788-2374 김영증재정부장 (02) 788-2371

※ 계좌번호 : 농협국회지점 036-01-083485(대한속기협회)

발전기금 납부 회원명단		유순태 회원 : 30만원	경영소프트 : 330만원	이범재 회원 : 30만원
지대섭 회장 : 300만원	권용태 부회장 : 50만원	정명길 회원 : 30만원	염덕훈 회원 : 30만원	신현중 회원 : 30만원
신세화 부회장 : 100만원	김진기 고문 : 50만원	김순철 회원 : 30만원	고태중 회원 : 60만원	윤희억 회원 : 10만원
최황수 회원 : 50만원	최황수 회원 : 50만원	황인하 회원 : 30만원	전해성 회원 : 30만원	이영렬 회원 : 30만원
성천영 이사장 : 30만원	김기영 회원 : 30만원	김선옥 회원 : 30만원	이경식 회원 : 30만원	최복임 회원 : 10만원
홍순관 회원 : 30만원	김창진 회원 : 30만원	김선필 회원 : 10만원	이강현 회원 : 30만원	이상호 회원 : 30만원
		송기철 회원 : 30만원	최석모 회원 : 30만원	속기사 양성소 : 10만원
		신희동 회원 : 30만원	손재옥 회원 : 30만원	김춘원 회원 : 3만원
		한국스테인 : 380만원	이석연 회원 : 30만원	김치원 회원 : 30만원
		박정호 회원 : 30만원	박광택 회원 : 30만원	육심옥 회원 : 30만원
		이주성 회원 : 30만원	강수현 회원 : 30만원	



속기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 ‘국회 속기록’ 하이텔 서비스

국회의원들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를 PC통신을 통해 쟁겨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한국PC통신(대표 申東浩)의 하이텔은 국회 속기록 전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심재철 국회 속기록’(go watizen)의 서비스를 1998년 5월 8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심재철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하이텔로 전송하는 국회 속기록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속기록 등 4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매일경제》 5월 8일자 기사에서 인용)

## 정호선 의원 홈페이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호선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국회회의록 일부를 볼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정호선 의원의 홍보와 함께 회의록, 법률에 관한 소식이 소개되어 있는데 회의록 관련으로는 제180회·제181회·제183회 국회 본회의록이 실려 있으며, 아울러 16개 상임위와 제도개선특위소관 법률안들이 소개되어 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assembly.go.kr/~hschung>이다.

## 다큐멘터리 국회 속기록

KBS 1라디오(711KHz, 97.3MMz)에서는 국회 속기록을 토대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국회 속기록」(월~토, 오후 9:35~10:00, 연출:조원석, 이해선 ☎ 781-3290, 3293)을 1998년 1월부터 방송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안별로 각 의원들의 원내발언기록을 꼼꼼하게 추적, 재구성하여 방송함으로써 정치 다큐

멘터리의 새로운 형식을 선보여 청취자들의 절대적 호응을 얻고 있다. 제1화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그린벨트’에서는 폭넓은 취재와 잇단 이해 당사자들의 제보 등으로 우리 나라 그린벨트의 제정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를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2화로 방송된 ‘가족법 개정’은 김영정 장관,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 김장숙 등 가족법 개정과 관련된 인사들이 총출연하여 여성관련단체로부터 한국 가족법 개정사의 총정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제3화 ‘지방자치 3년, 어디까지 왔나’에서는 4월 17일 김수한 국회의장이 직접 출연하여 여야 정당이 지금까지 당락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체인 국민편에서 쟁점 사항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 시사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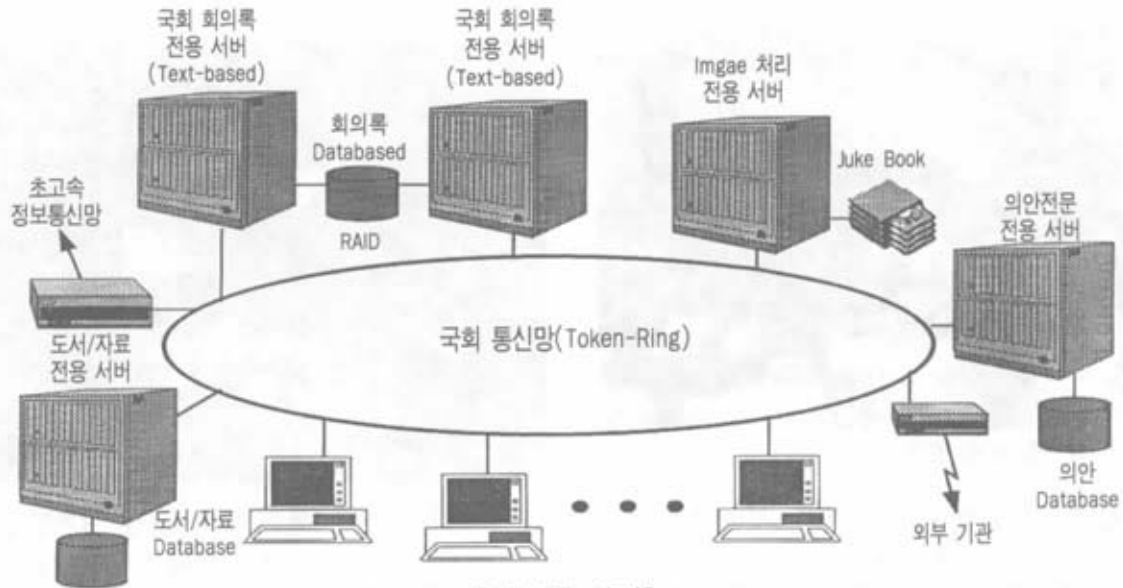
- 아웃소싱(Outsourcing) : 자체 인력이나 설비를 이용해 하던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대체하는 것. 특히 업무가 계절적·일시적으로 물리는 경우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로 기업에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정부부문도 일상적 관리업무나 수익성이 있는 사업 등을 민간에 맡기거나 넘겨 효율성을 높이면서 경비를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다.
- 결합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보다 계열사 대상을 확대,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고 계열사간 채무보증 현황을 첨부한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상호 독립적인 법인들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한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

- 롤오버(Roll-Over) : 금융기관이 상환 만기가 돌아온 부채의 상환을 연장해 주는 조치. 롤오버 비율이 70%라는 것은 국내은행에 100달러를 빌려준 외국금융기관이 만기가 됐을 때 70달러를 연장해 줬다는 말이다.
- 리보(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금리 :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일류은행들이 자기들끼리의 단기적인 자금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



#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 개요



[시스템 환경]

## 1. 시스템 개요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정보화 촉진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95년 4월 19일 공공응용서비스 개발과제 26개 중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이 선정되어 국회회의록의 Full Text Database 구축 및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 2. 구축내용

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본회의, 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대상회의록으로 하여 제헌부터 1994년(171회)까지 821책(약 84만쪽)을 이미지 자료로 구축완료하였고, 이후의 자료는 텍스트의 형태로 하여 1995년(172~178회)의 회의록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996년 이후(179회~)부터의 회의록(1년에 약 5만5천쪽 분량)은 구축작업중에 있다. 98년 9월부터는 국회회의록원문(텍스트 파일 형태로 구성)과 국회회의록(텍스트파일과 이미지 파일 형태로 구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 등록을 하게 된다.

## 3. 기대효과

97년 12월 2일에 국회회의록데이터베이스의 개통식을 갖고 이날부터 국회회의록 데이터베이스가 국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국회의원이거나 국회관계직원들은

단말기를 통해 필요한 회의록 내용을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회의록의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①지금까지는 방대한 국회회의록은 색인집의 도움 없이는 입법정보원으로 활용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왔었으나 이제는 정보검색 및 활용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②회의록 보관을 위한 보관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③회의록 색인발간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④국회회의록의 다양한 활용과 ⑤타매체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으며, ⑥책자 형태의 자료의 경우 그 수명이 한정적이어서 그 보존에 문제점이 있어 왔으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의 반영구적 보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⑦텍스트 형태의 회의록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최대의 전문데이터베이스로 자연어에 의한 검색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전문데이터베이스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⑧향후 국회회의록 데이터베이스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그 내용을 소상히 알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켜줌과 동시에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 탐방 - 충청북도의회

# 회의록 편찬에서 배부까지 일괄 작업



▲ 충청북도의회 농림수산위 장면

## 2인1조로 20분씩 교대 속기

청주시 중심가 충청도청 신관 6층에 자리잡은 충청북도의회는 상당공원과 우암산을 뒤로 하고 있어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을 늘 벗삼을 수 있어서 좋다.

현재 의원 27명(지역구의원 24명, 비례대표의원 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속기조 편성은 2인1조로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똑같이 20분씩 교대로 쓰되 위원회별 전담속기요원 배치없이 풀(pool)로 운영하고 있다. 회의실은 총 8개로 각각 6개의 상임위원회회의실과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이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기록계가 아닌 자료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원은 15명으로 이중 속기사는 10명이다. 속기사 가운데 남자는 1명, 여자는 9명이며, 이중 경력 6년 이상이 9명, 5년 이상이 1명이다.

지방의회라면 마찬가지로겠지만 충

청북도의회도 속기에서부터 회의록 편찬, 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속기사들이 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 작성 외에도 다른 잡다한 일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나는 속기사니 속기업무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업무량 과다로 법정기일내 회의록 발간 어려워

회의록 작성방법은 '속기→번문→워드작성→교정→마스타 인쇄'로 하고 있으며, 속기담당 1차 교정이 끝나면 각각의 문서를 합친 상태에서 2차 교정에 들어가고 다시 직원의 교정이 끝난 후 인쇄로 들어간다.

회의록 배부는 종전에는 회의록이 인쇄되어 나오면 속기사들이 일일이 포장을 하여 우체국에서 소포로 부쳤는데, 97년말부터 마스타 인쇄 후 출판사에서 포장하여 우편으로 각 시·군·구에 배부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기일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연간 회의 일수의 증가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 증가로 업무량이 과다해짐에 따라 법정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회의록 신속발간을 위해서 집행부측에서 이송되는 자료를 디스켓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조나 업무의 전문성별 세분화, 또 편집 교정요원을 따로 두는 등 여러 가지 방안

이 모색되어져야겠지만 기록시간의 단축을 위한 컴퓨터속기 도입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 기기의 대당 가격이 상당히 높아 모든 속기사들이 이 기기를 갖추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상의 문제와 현재의 속기사들에 대한 교육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변문보조수단으로의 활용을 생각해 봄직하다.

## 능동적인 업무자세 절실히 필요해

그리고 회의록 전산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할 계획은 없는 형편이다. 단지 회의록의 보관을 디스켓에 백업하는 정도이다.

속기업무는 말하는 그대로 적는 단순업무가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광범위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데도 이러한 속기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속기사들을 일반기능직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많은 속기사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현재의 기능직 체제에서 일반직군 내 속기직렬로 조정하는 것이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소속 속기사들은 작년부터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97속기 행정과정과 국회의정연수원 교육, 속기학술세미나 등 교육 및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속기업무만 담당해서는 안 되는 현상황에서 무엇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지방의회 속기사의 바람도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초대석 — 제5회 전국속기경기대회 금상수장자 변성수 회원

# 번문 연습에 치중했습니다



▲ 지대섭 회장으로부터 상장을 수상하고 있는 변성수 회원

지난해 11월 5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의 한 행사로 제5회 전국속기경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에서는 국회 정기회 일정 때문에 속기사들이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각 지방의회별로 3명씩의 참가자를 신청받아 31명의 수필속기사들이 참가하였다.

문제의 출제형식은 2개의 문제가 제출되어 낭독자가 경기대회 직전 선택, 연설체 문장 1,650자를 5분간 낭독(1분간 330자)하고 60분 동안 번문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는데 영예의 금상은 경상북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성수회원이 수상하였다.

다음은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변성수회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해 본 글이다.

먼저 이번 대회에 1등상을 수상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속기는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속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 재학시절 속독에 관심이 있어 책자를 구입하여 연습해 보던 중 책자의 부록 부분에 남상천 선생이 창안한 남천식 속기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흥미가 있어 조금 연습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속기에 관심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속기는 어디서 어떻게 배웠고, 자격증은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1983년경 서울에 있는 고려속기학원으로부터 책자를 우편 구입하여 지방에서 독학으로 공부하였습니다. 1급 자격증 취득은 1985년도이고, 취업은 지방의회 개원 당시(1991년 4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연습하여 대회에 임하였습니까?

-특별한 연습방법은 없었습니다. 굳이 나름대로 연습한 방법을 얘기하자면 대회를 앞두고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번문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 번문연습에 치중, 써놓은 속기문장을 국어책 읽듯 읽으며 바로 읽거나 또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는 등의 방법으로 연습하였습니다.

독특한 방법이로군요. 속기경기대회에 참가하면서 받았던 느낌을 말한다면?

-처음에는 1,600자를 기준해서 오·탈자 5자 이하에 도전해 보려고 목표를 세웠으나 오랜만에 치러보는 평가라서 그런지 긴장감 때문에 만족스럽게 치르지 못한 것 같아 대회후 조금 낙심했었습니다.

집에 와서 속기원고를 보면서 번문한 기억을 되살리며 점검해 보니 역시 번문을 좀더 침착하게 하지 못한 부분과 오청으로 인하여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단어, 맞춤법에 있어서도 '들맹이'의 '맹'자를 '맹'으로 써 넣고 어느 것이 맞는지 순간적으로 혼동이 되어 무척 당황했다가 한참 망설인 끝에 써 넣은 것이 결국은 실수를 했던 점 등이 아쉬웠습니다.

완벽한 번문작업이 늘 아쉽다는 것은 속기사들의 공통된 느낌이겠지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행히 운이 따랐는지 1위를 수상하고 보니 하나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친 자만이겠지만 앞으로 INTERSTENO 등에 혹시 한글수필 부문 속기경기대회가 있다면 그런 곳에도 참석해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 및 대회 유치를 위한 제반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인들에게 감사드리고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근무시간중에도 자투리 시간을 내어 트레이닝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 장미경 홍보부장)

글마당

# 비둘기 이야기



崔 倫 楨 회원

**나**는 비둘기가 싫다. 초등학교 시절 반공포스터를 그려오라는 과제가 있으면 매학기 매학년마다 파란색 한반도에 평화롭게 나는 한 마리 비둘기를 그려넣던 내가 비둘기를 싫어하게 된 것은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다.

화장실보다 더 자주 드나들던 우리 학교 매점 앞에는 항상 비둘기떼가 학생들이 뿌려준 과자부스러기를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곤 했다. 그 무리중에 너무 살이 찌서 가슴과 목을 구분할 수 없고 뒤통거리며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해서 여기저기 더러운 오물들을 묻히고 다니는 한 놈을 발견하고부터 나는 비둘기를 혐오스러운 조류로 단정지었다. 왜 매점에 갈 때마다 그 놈만이 유독 눈에 잘 띄던지.....

그때부터 나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후 고등학교 시절, 서클활동으로 나의 근거지는 울지로 3가가 되었다. 재개발로 성북동을 떠나야 했던 비둘기에 대해 토론하던 3층 서클룸에서는 울지로의 삭막한 도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고 그 삭막함마저 애뜻함으로 다가오던 사춘기의 그곳에도 여지없이 식당 짬밥에 머리

를 처박고 있는 비둘기가 있었다.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짬밥 비둘기. 이제 성인이 되어 비둘기처럼 다정한 연인과 부부가 되어 들만의 가정을 이루어 새보금자리를 틀었다. 그러나 이 3층짜리 연립의 302호는 우리 들만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집을 짓기 알맞게 턱을 만들어 놓은 창문 위에 비둘기 등지가 있었던 것이다. 하기야 그들이 먼저 등지를 틀고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불청객일까?

**나**는 비둘기가 싫다.

아침이면 바리톤으로 울어대는 기분나쁜 울음과 비오는 날이면 더욱 유난히 울어서 빗소리를 즐기는 나의 취미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나쁜 비둘기. 나는 비둘기가 싫다.

어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며 성질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인류와 관계가 깊은 새란 말인가. 내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지금 곰곰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생명력이 강하며 인간과 친근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만약 귀하고 어디를 찾아가야만 볼 수 있고, 대개 누구누구의 소유인 신기하게 느껴지는 구관조가 평화의 상징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잔할까?

(국회사무처 속기2과)

## 투고를 기다립니다

● 회원 동정란

승진, 인사, 결혼, 개업, 이전, 출판 등

● 지방의회 소식

각 지방의회 소식(정기회, 임시회 등 회의 관련)

● 컴퓨터 관련란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각종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윈도우 95 활용, 한글 3.0의 실무적용 프로그램 소개, PC통신 '속기방'의 시삽 개실, 기타 지방네트의 소개 및 활용

● 동호인란

회원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모임 소개, 모집이나 결성

● 버럭시장

회원상호간에 필요한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기증하는 코너

● 회원참여마당

시, 수필, 시조, 풍트, 제언 등

● 기 간 : 연중 계속

● 보내실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내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 F A X : (02)788-3386~7(수신자: 서현숙)

● 기 자 : 장미경, 서현숙, 이시정, 정 숙

# 어머니께 드리는 獻詞

어머니의 생신날을 표시해 두려고 무심코 달력을 넘기다 보니 어느 새 춘분을 지나 날모래면 청명이랍니다.

그리고 보니 창밖 운중로에는 벚꽃이 한창이군요. 지난 해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진 꽃의 향연이라지요. 몇 년전,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시기 전이니까 아마 92년쯤 되겠지요.

어머니는 벚꽃 속에서 너무나 환한 얼굴로 서계셨습니다. 사진속에 남아 있는 당신의 모습에 또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겨우내 응크리고 있던 가슴에 훈풍을 불어다 주는 계절의, 자연의 섭리에 자신 만만하던 그 높은 쿿대를 저는 꺾었습니다. 그리고 왜 어머니는 자식들의 투정과 타박에도 끝내 고향에 남기를 고집했는지 이제사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끼게 될 때, 송구스럽게도 어머니의 딸이 벌써 기울어가고 있음을, 그래서 봄을 봄으로 맞이하고 있지 못함을 혹여 눈치채신 것은 아니겠지요?

자랄 때는 많게만 여겨졌던 형제들이 전국에 흩어져 제각기 가정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눈에 띄게 늙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그렇게.....

그래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몫의 시간은 각자의 모습을 다르게 변화시키면서 세월에서 세월로 흐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 단순하고 분명한 진실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 선택이 최선의-비록 최상의 것은 아니었다 해도-선택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어머니는 알고 계시지요?

딱히 한 가지 병명으로 이름지어지지도 않은 채, 이곳저곳 안 아픈데 없었던 어머니의 말씀을 짜증으로 들었던 미움함이 오늘은 몹시 후회스럽습니다.

손톱 끝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도 갖은 엄살을 떨던 제가 아니었던가요? 생각하면 다시 어릴 적, 아니 젊은 시절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수도 미련도 없이 딸노릇을 했을텐데요. 지금도 결코 늦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어머니는 또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지난 날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날아보라고 하시겠지요. 잘 알겠어요. 어머니가 무얼 말씀하시고 싶은지.

문안이나 전하려 했던 것이 부절없는 푸념으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아닐는지..... 하지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렇게 제 애기에 귀기울여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말 행복하답니다.

작년 봄에도 그러했듯이 봄이 가기 전에 마치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봄바람을 쐬러 고향에 가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팔남매가 얼마나 싱싱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어머니의 아들딸들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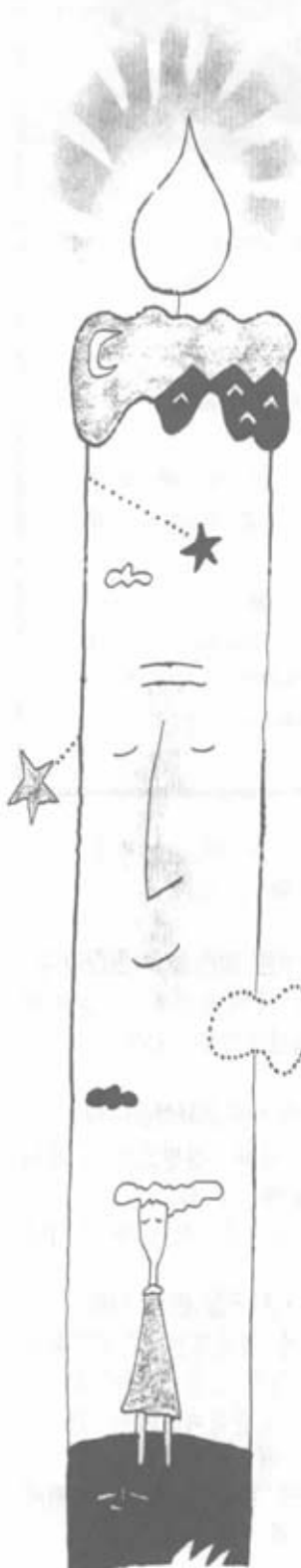
그럼 이만 총총.....



김영중 회원

1998년 4월 첫머리에

(국회사무처 속기과, 협회재정부장)



회원동정

지대섭 회장 동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Ⅱ분과위원회)위원으로 활동(97. 12. 26~98. 2. 20)
- 대한 트라이애슬론(TRIATHLON) 경기연맹 회장으로 추대됨(98년 1월)

결혼·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최윤정(대전광역시의회)/ (98. 1. 11)
- 지점순(충남도의회)/ (98. 2. 8)
- 장미남(충북 청주시의회)/ (98. 2. 22)
- 정형관(경북 구미시의회)/ (98. 2. 27)
- 오광택(대전광역시의회)/ (98. 3. 1)
- 반규홍(충북음성군의회)/ (98. 3. 8)
- 하재욱(대전대덕구의회)/ (98. 3. 15)

승진·표창·축하합니다

- 유영란(서울마포구의회)/ (별정8급→별정7급)
- 장혜경(서울서대문구의회)/ (별정8급→별정7급)
- 우현주(서울마포구의회)/ (별정9급→별정8급)
- 김순희(대전서구의회)/

글 마당/시

희년(禧年)의 노래



동강난 반도의 허리  
생채기 굽혀있어  
얼룩이 묻어나는  
너타 나의 조국은  
말없이 지켜나온  
우리의 땅.

새벽열차 타고  
원산을 향해  
떠나가는 길목에  
들뜬 한 포기,  
죽어서 다시 사는  
들녘이여  
누구를 기다렸인가.

허리 꺾인 뉘 해  
녹슨 철조망 사이로  
청둥오리떼 들락거너니  
아! 하나님  
통일을 선포하신  
그 날이로다.

김 재 학 회원  
(국회사무처 속기1과)

註: 희년(禧年)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말로 50년마다 돌아오는 복스러운 해.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는 해이다.

(기능9급→기능8급)

- 정재신(대전유성구의회)/ (기능9급→기능8급)
- 허지선(충북도교육위원회)/ (기능9급→기능8급)
- 한기수(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총장 표창(98. 5. 31)
- 이준태(국회사무처) : 98년도

국회공무원 테니스대회 복식 준우승(98. 5. 20)

개업·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준태(국회사무처) : 솔이네 즉석 김밥집(713-1599)

사임·퇴직·수고하셨습니다

- 엄덕훈 이사 : 신병으로 국제이사 사임(98. 5. 8)
- 채강희 보좌관 : 퇴직(98. 3. 16)

협의회원·지국장 변동 사항

- 전북지국 협의회원 : 손상범회원  
에서 도의회 심철숙회원으로  
지국장 : 오윤식회원에서 전주시  
배경남회원으로
- 제주지국 지국장 : 강일자회원에  
서 도의회 양진희회원으로

소식지·속기계 배부 안내

본 협회에서는 <대한속기협회소식>지(제1호, 제2호)와 <속기계> 제34호를 무료 배부코자 합니다. 그동안 <소식지>와 <속기계>를 받아보지 못한 회원과 더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협회 홍보부(전화: 02-788-2376, 24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